

# 대구주보

연중 제18주일  
2020. 08. 02. (가해) 제2225호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빵과 물고기의 기적』, 후안 데 에스피날, 1750년경, 스페인 세비아 시의회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성요셉재활원장 | 최광경 비오 신부

재활원에 사는 요셉은 저만 보면 매번 반지나 뭘 사러 가자고 합니다. ‘내일 사러 가자.’고 하면 엉덩이춤까지 추면서 좋아라 하고 방으로 가는데, 저도 빈말만 되풀이할 수 없어 같이 목주 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아웃렛 상점에 잠깐 들렀는데, 요셉은 그 사이 주변의 모자에 눈길이 쏘였습니다. ‘돈 있냐?’고 물으니 호주머니 탈탈 털어 백 원짜리 동전 다섯 개를 꺼냅니다. 그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요셉이 좋아하는 커피를 두 번이나 뽑아 먹을 수 있는 거금을 저에게 전부 준 것입니다. 오백 원과 오만 원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전 재산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결국 모자를 안 사 줄 수가 없어 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드시어 육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걱정하시는 분이시며, 빵이 다섯 개 밖에 없어도 배고픈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빵을 주고,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남자만도 오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나의 간절함과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마음을 담아 나누면 하느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태 14,16) **말씀**

## 누구나 두려워해요!

- 선행 작업 : 두려움과 용기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어느 날 밤, 지금 잠드는 순간 그대로 나의 삶이 끝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더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죽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불안함이 마음 한쪽에 스며듭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나의 진면목을 마주 대하니 초라한 내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 많은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엇' 앞에서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외부적인 것(사람, 상황)에 영향을 받은 내가 경험하는 감정반응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두려워함 그 자체이기도 하지요. 두려워함 자체는 온전하게 느끼는 감정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리적, 인지적 현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몹시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배가 아프다든지 식은땀이 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숨쉬기가 힘들기도 하고 동공이 확장되며 손발/팔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덜덜 떨리기도 합니다. 또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왜곡해서 생각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소리를 내거나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심장이 뛰고 긴장도가 올라가며 두려운 감정이 나 자신을 잠식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릴 때 유사한 경험(가정 폭력 등)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나의 경험, 내 삶 안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왔던 각자 인생의 총체적 경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쌓여온 내적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스스로 멈추거나 조절하는 것이 참 힘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만납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고 존경스럽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서 부럽습니다.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또 한심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죽음을 묵상한 밤-두려움과 마주 대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시간, 관계들이 한없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느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골로**



## 교황, 젊은이들에게 “조부모를 위해 사랑의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2020년 7월 26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정숙

젊은이들은 나무다. 자랄 준비를 갖췄지만, ‘조부모’라는 튼튼한 뿌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26일 연중 제17주일 삼중기도 후, 교회가 이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를 기념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황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랑하는 이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황은 그들의 조부모에게 애정을 표하라고 권고하면서, 조부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저는 노인들을 향한 온유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젊은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집과 거주지에서 오랫동안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 특히 혼자 있는 노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 노인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사랑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전화나 영상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방문하세요. 보건 규칙을 따르면서요. 그분들을 안아 주세요.”

### 뿌리

교황은 아르헨티나 시인 프란시스코 루이스 베르나르데스(Francisco Luis Bernárdez)의 시구를 다시 인용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더블린 세계가정대회에서 “어린이가 자신의 조부모와 소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한다”라며 이미 인용하기도 했던 표현이다. 사실, 튼튼해지려면 튼튼한 뿌리가 필요하다. 그 뿌리는 이름이 있다. 곧 조부모다.

“조부모들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 뿌리와의 결합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제 모국의 한 시인은 ‘나무에 피어난 것은 나무 아래 묻힌 것에서 나온다(Quello che l'albero ha di fiorito, viene da quello che ha di sotterrato)’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부모님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브라질 프랑카교구의 신자들, 이탈리아 모데나-노난톨라대교구의 젊은이들, 로마의 성 파비아노와 성 베난지오 본당 신자들에게 인사했다.



## 최인길 마티아 (1765~1795년)

1765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길(崔仁吉) 마티아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이벽 요한 세례자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1801년에 순교한 최인철 이냐시오는 그의 동생이다. 최 마티아는 입교 초기부터 동료들과 함께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으며, 1790년 윤유일 바오로가 북경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는 성직자 영입 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그가 맡은 일은 선교사가 은신할 거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후 최 마티아는 한양 계동(현 서울시 종로구 계동)에 집을 마련하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1794년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마침내 조선에 입국한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이듬해 초 최 마티아의 집으로 인도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주 야고보 신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밀고자에 의해 주 야고보 신부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고 말았다. 최 마티아는 주 야고보 신부에게 피신할 시간을 벌어주고자 자신이 신부로 위장하고 집에서 포졸들을 기다렸다. 체포된 지 얼마 안 있어 최 마티아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포졸들은 다시 주 신부의 행방을 쫓으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최 마티아는 주 신부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곧 주 신부의 입국 경위가 밝혀지고, 그의 입국을 도운 밀사 윤유일 바오로와 지황 사바도 체포되고 말았다.

최 마티아와 윤 바오로와 지 사바는 체포된 날부터 포도청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이때 그들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굳은 인내와 결심, 그리고 지혜로운 답변은 박해자들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때려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사정없이 매를 맞고 숨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 이었다. 당시 최 마티아의 나이는 30세였다.

이후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 교회의 밀사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최 마티아가 보여준 용기와 그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느냐?’는 질문에 용감히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 최인길은 이승훈 베드로가 신앙 전파를 위해 선발한 최초의 회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열성과 믿음과 신심이 뛰어난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오늘의 전례

<b>제 1 독 서</b>	이사 55,1-3	<b>제 2 독 서</b>	로마 8,35,37-39	<b>복 음</b>	마태 14,13-21.
<b>화 답 송</b>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b>복음환호송</b>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알렐루야.				
<b>영 성 체 송</b>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 교구장 동정

- 7. 29(수) | 선목학원 퇴임 교장, 교감, 행정실장 감사패 수여식
- 7. 31(금) |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쓰기 시상식

7월 1일자로 발표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동안의 새로운 교구 지침’ (요약)

1.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직업상 감염의 우려가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주일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2.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하여 평일에도 미사를 봉헌하며 성모당은 7월 9일(목)부터 평일미사를 봉헌할 것입니다.
3. 어린이미사, 학생미사, 청년미사 등을 본당 여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재개하기를 권고하며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주일미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길 바랍니다.
4. 본당 여건에 따라 필요한 첫영성체, 견진을 비롯한 기타 교육 등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대한 실시토록 합니다.
5. 세나투스 월례회의 건의에 따라 (낮과 저녁) 평일미사 전이나 후 ‘합동주회’를 갖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6. 그 밖의 신심단체는 작은 교리실에서의 소모임을 피하고 성전이나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월례회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7. 본당 여건에 따라 실시되는 일괄고백과 일괄사죄 예식에 참여한 사람은 판공성사를 본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모른 척 하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3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	-

## 9월 가나 강좌

**일시:** 9.13(일) 10:00 ~ 13:1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현장접수 불가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 확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9.3(목)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천지 및 유사 종교(사이비) 침투를 조심합니다!

신천지 및 각 유사종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자로 위장합니다.

포섭 활동을 유도하면 신천지 및 유사종교 신자로 의심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하여

교구청 홈페이지의 “주의! 유사종교”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릉도 · 독도**  
출발일 : 8월 17일 / 9월 3일 (2박 3일)  
**제주도 · 추자도 성지순례**  
출발일 : 9월 7일 (2박 3일)  
**T. (053)253-3399**  
☀ (주)성지여행 조 열 레(유스티노) 흥 미 희(안젤라)

**박익현 구심내과**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 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베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대형선풍기 에어컨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

37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성소 | 피정**

성모 승천 대축일 맞이

묵주 1,000단 기도 피정

일시: 8.4(화)~15(토) 11:00~16: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2번 출구 10:00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10)9045-0191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8.12~15(우도) / 8.17~19

8.21~23 / 8.31~9.3(추자도)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8.13~16 / 8.25~27 / 8.31~9.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8.9(일) 9:00~17:00

장소: 교구청 및 성모당

고3~대학·일반(입시반): 8.13(목)~15(토)

장소: 한티피정의집

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8월 권미나(도미나)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전공반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로CPE센터, (010)4143-5508

밀알회 후원회원 모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 ME 주말

379차: 8.14(금)~16(일)

380차: 9.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모집

장소: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서울 동선동)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신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8.24~26 / 9.14~16 / 9.21~23

장소: 제주성지 7곳

지도: 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공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게재일: 8월 16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사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선녀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53)257-8588

신교 제2005-118호  
소회 한 달 가장 개발비!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리더십 & 발표력 & 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 입시 취업 면접, 화술·회합, 대중스피치  
대상: 유아부터 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리시 옆) T. 010-9538-3809  
NAVER 스피치킴교육 김광아(서버나)

대구대교구 월명성모의 집  
실버타운 / 노인 복지주택 /  
어르신들을 모신다  
성모님 사랑 안 -  
인력한 노후생활을 -  
문의 054)434-2898  
김천시 남면 주천로 1448-16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책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대우빌딩 500m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이혁익사 / 대항항문 세보 전문의 노성규 어우루스하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발병원 4층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호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영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